

선스 계약은 품질관리에 관한 조항(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 제4조)에서 원고에게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의무,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제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원고가 계약제품(담배 완제품)을 제조·보관하는 장소,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모두 C의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들 중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쉼련 재료(담뱃잎 재료, 기타 쉼련 재료)의 판매자들 역시 모두 C 계열사이다.

라) 상표부착 재료의 판매자들은 대부분 비계열사이나, 위 판매자들은 C의 글로벌 구매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원고는 상표가 표시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상표부착 재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담배 완제품 제조에 적합하도록 C의 디자인, 상표, 노하우 등이 구현되어 있는 상표부착 재료를 수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C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무형의 권리가 체화·구현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이 사건 물품의 대용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